

# 광주상의 '미래내일 일경험' 청년 취업 사다리 역할 톡톡

### 지난해 209명 참여 인턴 과정 실무 경험 후 38명 취업 성공 지역 기업 12곳 참여...기업 지원금·멘토 수당 등 각종 혜택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광주·전남에서 광주상공회의소(이하 광주상)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 지역 청년들의 취업 '사다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취업이 간절한 지역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돕는 일경험 사업은 올해에만 40명에 가까운 취업자를 배출했다. 15일 광주상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상의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참여자 중 38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호남권 일경험 사업 지원센터인 광주상의는 고

용노동부 지원을 받아 광주(2곳), 전남(3곳), 전북(3곳)의 운영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광주지역 운영기관 중 한 곳인 베스트인 광주지사는 지난해 일경험 사업 인턴형 운영을 맡아 209명의 참여자를 모집, 수료 인원 134명을 배출했다. 이 중 인턴 기업에 직접 채용된 13명을 포함해 총 38명의 지역 청년이 꿈에 그리던 취업에 성공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KOSIS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20~30대 취업자는 236명이었다. 전남은

214명으로, 비슷한 규모의 도시인 대전(274명)보다 14% 적었다. 일자리가 적다보니 청년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는데, 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이에 지난해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 복지기관과 광주YWCA 등 NGO단체 일곡한솔전문요양원, 한국능력개발원, 한국가스안전공사 광주광역시지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기업 12곳이 참여해 지역 청년들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한 데 이어 채용까지 결정했다. 지난해 미래내일 일경험 참가자인 백모(여·25)씨는 지역의 한 종합병원에서 12주 인턴을 마친 뒤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됐다. 백씨는 "취업을 준비하면

서 직무 경험 부족이라는 커다란 벽을 마주했지만, 미래 일경험 사업을 통해 사회 초년생으로서 회사에 필요한 현실적인 능력들이 무엇이고 어떻게 키워야 하는 지 명확히 깨달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백씨는 이어 "인턴십에서 얻은 경험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힘을 얻게 됐다"며 "미래내일 일경험은 인생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됐고, 이 경험을 발판 삼아 더욱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은 청년들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 참여기업에는 4주 기준 1인당 20만원의 기업 지원금과 15만원의 멘토 수당이 각각 지급된다. 한 사업 참여기업 관계자는 "일경험에 참여한 청

년들의 수준이 생각보다 높아서 기업의 만족도가 높았고, 실제 채용으로 연계돼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베스트인 광주지사 관계자는 "인턴형 일경험을 통해 참여기업에서는 잠재력 있는 인재를 미리 확보할 수 있고, 참여청년은 다양한 직무경험을 쌓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며 "실제 일경험 프로그램 종료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례가 다수 있어 많은 호남권 미취업 청년들이 일경험 사업에 참여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내일 일경험 호남권지원센터는 인턴형 일경험 참여기업 및 참여청년을 상시로 모집하고 있다. 청년에게는 4주 기준 14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보해양조, '설날 프리미엄 매취순 선물세트' 구성 출시

### 27일까지 신세계백화점서 시음회

보해양조가 다가오는 설날을 맞아 선물세트를 선보이며 새해 인사와 함께 부담 없이 전할 수 있는 명절 선물 시장 공략에 나섰다. <사진> 이번 설날 선물세트는 75년 전통의 보해양조가 자신 있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매취주 '매취순'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해남 보해 매실농원의 최상급 매실로 만든 매실청과 매실절임 세트도 갖춰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보해양조 선물세트는 고품가 시대에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전망이다. 명절 선물로 손색없는 프리미엄 이미지와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젊은 세대는 물론 대량 구매를 고려하는 기업체와 단체까지 폭넓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구매 편의성 또한 눈에 띈다. 보해양조 선물세트는 편의점 스마트오더 앱에서 손쉽게 구매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주문 후 가까운 편의점에서 픽업하는 서비스는 바쁜 직장인들 사이에서 특히 호평을 받고 있다. 설날을 앞두고 광주 신세계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는 프리미엄 매취순 시음 행사가 진행된다. 시음 행사는 오는 27일까지 운영되며 현장에



서 선물세트 구매도 가능하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매취순은 보해양조의 기술력과 전통이 집약된 제품으로 전세대를 아우르는 사랑을 받고 있다"며 "합리적인 가격대에 프리미엄 가치를 담은 이번 설날 선물세트도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물 선택을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설맞이 선물세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해양조 공식 홈페이지(www.bohae.co.kr) 공지사항에서 판매 브로슈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농어촌공사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신청 하세요"

### 만 65~84세 사이 농업인 대상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규 신청자를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고령 농업인들이 사용하던 농지를 청년 농업인 또는 후계 농업인에게 양도할 시, 매월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은퇴 생활과 청년 농업인들의 농지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사업에 총 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예산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 신청 대상은 최근 10년 동안 농업경영을 지속해 온 만 65~84세 사이 농업인이며, 신청 가능한 농지는 3년 이상 본인 소유의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또는 경지 정리가 완료된 농지로 1인 당 최대 4ha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식은 매도 또는 매도 후 조건부 임대 두 가지로 구성됐다.

매도 방식을 신청할 경우 농지 매매 대금 외에 1ha 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한 번에 모두 받을 수 있는 일시 지급 방식을 새로 도입해, 개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매도 조건부 임대를 신청할 시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 외에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을 최대 10년 동안 지급받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 상담센터 또는 농지은행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신협,뱅크샐러드 연동 대출비교 서비스 제공

신협이 상호금융권 최초로 금융상품 비교 플랫폼 '뱅크샐러드'에서 대출 상품을 소개한다. 신협중앙회는 15일 "뱅크샐러드와 '대출모집업 무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리 비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제휴를 통해 신협의 주택담보대출(생활안정자금, 주택구입자금) 서비스를 뱅크샐러드 앱에 연동된 리온브랜치 채널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객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 제출, 약정서 작성,



근저당권 설정 등 모든 절차를 장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뱅크샐러드는 1400여 개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국내 대표 핀테크 플랫폼으로,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금융상품을 소개한다. 담보 물건의 위치를 기준으로 최적의 대출 조건이 추천되며, 한도와 금리를 포함한 상품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신협중앙회 디지털·경영지원본부장은 "이번 뱅크샐러드와의 제휴는 상호금융권 최초 사례로, 신협의 디지털 금융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비대면 대출상품 영업 기반을 확대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취업자 줄고 실업률 올라...지난해 광주·전남 '고용 한파'

### 불황 장기화에 고용지표 악화

지난해 광주와 전남지역 모두 실업률이 전년 대비 0.5%포인트(p)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은 고용률도 하락하는 등 고용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코로나19 여파 및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지역 경기불황이 장기화 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15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실업률은 3.0%로 전년보다 0.5%p 상승했다. 실업자는 2만4000명으로 전년(2만명)에 견줘 4000명(20.4%) 늘었다.

다만 지자체와 지역 기업들의 취업·창업 지원 등에 힘입어 고용률은 0.5%p 오른 60.6%를 기록, 취업자도 6000명(0.7%) 오른 77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취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광주시 비경제활동인구는 48만명으로 1년전(49만1000명)보다 1만1000명(2.2%) 감소했다. 지난해 광주시 일자리 질 역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를 중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44만6000명으로 전년(44만1000명) 대비 5000명(1.2%) 늘었고, 일용근로자는 1000명(1.0%) 줄어든 2만9000명으로 조사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의 경우 고용률은 하락하고, 실업률은 증가하는 등 대부분 고용지표가 모두 악화됐다. 지난해 전남지역 고용률은 66.1%로 전년 대비 0.8%p 하락했다. 취업자 수는 1만 5000명(1.4%) 감소한 100만 4000명을 기록했고, 경제활동인구도 9000명(0.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실업률은 0.5%p 올라 2.7%를 기록했고, 실업자 수도 2만3000명에서 2만8000명으로 5000명(23.7%) 늘었다. 지역 내 취업자 수가 줄어들면서 비경제활동인구는 1년 전보다 6000명(1.3%) 증가한 48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무안전통시장 간담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14일 무안전통시장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무안에서 위축된 경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박성효 공단 이사장과 김산 무안군수, 한승주 전남상인연합회장, 문정수 무안전통시장 상인회장 등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2025년 문화관광형시장에 선정된 무안전통시장의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과 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공단은 또 시장 내 점포에서 은누리상품권으로 농수산물을 구매하고, 은누리상품권 1억원을 광주·전남 복지시설 약 100여 곳에 전달했다. 박성효 이사장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경기침체와 여객기 사고 여파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



다"고 말했다. 한편, 소진공 광주호남지역본부는 광주은행 와(Wa)오피스와 연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무안군을 시작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상담소 운영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삼성전자 '더 프레임'으로 호텔 TV 시장 공략



삼성전자가 '아트 TV' 모델인 '더 프레임(The Frame)'으로 호텔 공략에 나선다. 삼성전자 '더 프레임(모델명 HL03F)'은 호텔 사용 환경에 맞춰 주요 특징과 디자인을 적용했다. TV가 꺼져있을때 그림·사진 등을 보여주는 '아트 모드'와 액자 형식의 베젤과 슬림핏 벽걸이 디자인이 특징이다. <삼성전자 제공>

## 광주세관 수출입 우수업체 3곳 공인증서 수여

광주본부세관이 15일 청사 소통마루에서 '2024년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를 거쳐 공인을 획득한 3개 업체에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관세청에서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공인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해 공인한 우수업체다. 이날 HD현대상호(주)는 신규 공인인, 롯데케미칼(주), 한국바스프(주) 등 2개 업체는 재공인을 받았다. AEO 공인업체는 서류제출 생략에 따른 신속통

관, 수출입 검사 비용 축소 및 수입신고시 담보 제공 생략 등 다양한 관세행정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세관에서 지정한 기업상담전문관을 통해 AEO 공인 사후관리뿐만 아니라 관세행정 전반에 관해서도 1:1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동수 세관장은 "최근 불확실한 대외 경제 여건과 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 환경에서 국내 기업들이 AEO 제도를 활용하여 각국의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관세행정 지원을 강화해가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주담대 변동금리 또 내린다...3개월 연속 하락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3개월 연속 내렸다. 15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11월(3.35%)보다 0.13%포인트(p) 낮은 3.22%로 집계됐다. 같은 해 10월 이후 석 달째 하락세다. 잔액 기준 코픽스도 3.53%에서 3.47%로 0.06%p 떨어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로,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고,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의 경우다. 2019년 6월부터 새로 도

입된 '신(新)잔액기준 코픽스' 역시 3.07%에서 2.98%로 0.09%p 낮아졌다. 신잔액 코픽스에는 기타 예수금과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의 금리도 포함된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96.81 (-0.59)
↓ 코스닥	711.61 (-6.43)
↑ 금리(국고채 3년)	2.675 (+0.029)
↓ 환율(USD) (오후 5시 55분 기준)	1460.80 (-2.40)